Since 1972 —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 건강한 교회 ·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

창간 1998년 9월 15일
2018.3. vol. 22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기사내용 미리보기

01 성시화
시장과의 좌담회를 통해 본 성시화운동의 방향성
02 특집
평창동계올림픽 미션 하우스
03 칼럼
연합과 하나 됨
04 선교 1
태국 의료선교
05 기획
땡큐 에티오피아
06 가정회복시리즈
제사장의 축복
07 기고문
이스라엘 방문기
08 독자 기고문
가장 아름다운 죽음
09 잠깐
신천지의 황당무계한 '신인합일론'
10 모임안내
11 교계소식
12 후원자 명단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본부장 조영춘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신재원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033-256-1260 033-257-1260
holycc1972@daum.net



시장과의 좌담회를 통해 본 성시화운동의 방향성

지금까지 성시 본부의 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시장과의 좌담회를 11월에 이어 12월에는 교육감과의 만남 그리고 이번 1월 23일은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시장과의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본 좌담회는 아침 7시부터 8시 40분까지 대부분의 시간이 시장에게 할당하였습니다. 시장은 진행 중인 시정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등에 대하여 들으면서 우리가 도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야 할 주요 시정에 관한 실제적인 것들을 토론하기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춘천의 총예산 11,377억이 어떤 용도에 활용되고 있고, 향후 우리 도시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할 곳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 지금 짓고 있는 시청사를 통한 향후 운영계획안
2.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공간의 구조 개편
3. 캠프 페이지 주변의 녹색 여가 공간을 형성하는 계획
4. 전철의 하부공사를 통한 온의 근화동등의 공원화 계획
5. 삼악산과 삼천동을 잇는 4.2km의 로프 웨어 공사와 관련된 진행 상항
6. 의암호 주변개발과 크루즈선과 스토리텔링 공간 개발 등에 관한 사항들
7. 소양8교 건설계획과 노후된 소양1교 활용 방안

이런 주요사안들에 대한 시장의 설명에 이어 건설국장님의 중앙 정부의 변화되는 계획에 맞추어 나아가야 할 시정의 방향성에 관한 진단 등 다양하고 진중한 마음의 대화와 함께 시정을 이끌며 가지는 고민 등을 청취하는 시간 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 춘천이 시장님의 비전대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행복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과 같은 복지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소통과 연합을 위한 생명의 도시로 세워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구체화 되고 실현되기 위해선 단순히 기도하며 그렇게 되길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직접 이런 일을 시행할 수 있는 영역마다 들어가 그 속에서 변화를 이루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적 일꾼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는 다양한 15개의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정 여성분과, 전도분과, 중보기도 분과, 정치와 경제영역분과, 직장신우회 분과, 역사분과 등등인데 이는 모두 사회의 필요한 영역 안에서 믿음의 지킴이와 파수꾼이 되어 단순한 사회적 정의만이 아닌 이를 뛰어넘어 복음적 터전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제안자로서 화평을 이룰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영역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모든 영역마다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마다 모든 위원회마다 성도들이 소속되어 관심 분야에 대하여 기도하고 연구하고 함께 하며 그 영역마다 어둠에 물들지 않고 파괴적 요소가 아닌 서로의 유익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운동이 성시화 운동이라고 봅니다.

이번 시장과의 좌담회를 통해 그런 실제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볼 수 있었던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우리 기독교의 유산으로 인정되어 있음에도, 현재는 시의 소유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문화 미술관 즉 구 중앙감리 교회 터에 대한 사안을 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건물 중 두 곳은 현재 건물 안전도의 D등급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두 건물은 허물든지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존속을 해야 할 정당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으면 부숴버리게 될 상황입니다. 이곳에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뿌리이며 영적 터전이라면 이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하나 된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두 번째 소양1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다리도 안전도 문제에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큰 차량은 통과를 못 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소양8교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만 다니는 산책로 또는 다리를 부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양 1교의 가치를 확인하여 활용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춘천의 자랑인 춘천대첩의 중심이었고 소양정의 본 자리이며 6.25 때 생긴 총탄자국이 선명한 이곳을 안보와 통일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과거의 총탄자국이 이젠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누군가 이를 위한 목소리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 드러난 것 외에도 각 지역 영역 마다는 필요한 것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춘천을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살기 좋은 아름다운 행복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복음적 일군들의 각 영역마다 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도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 안에 세워나갈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고 함께 하며 같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시화는 대회를 통해 상징적이며 선언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이젠 실제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각기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이를 위해 헌신된 분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며 전 방위적인 영적 싸움을 통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과 빛으로 이 땅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실 분들은 성시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조영춘 목사

특집

선교의 장이 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션하우스 백두대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며

인터뷰 :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오의석 목사 (대담: 이은정 사무국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강기총)는 춘천시를 비롯해 18개 시군과 함께 매년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로 모여 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러하기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강기총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치게 되는지 사무총장이신 오의석 목사님(순복음조은교회)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와 성공개최를 위해 강기총은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를 열며 준비를 해왔는데, 개최되고 있는 지금의 심정은 어떠하신지요?

해 년마다 18개 시군이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를 통해 올림픽의 성공개최와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그래서 강기총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져 감회가 새롭고 뿌듯한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를 위한 강기총의 구체적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올림픽선교를 위해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나 전도지 등을 협조 받기 위해 "원바디"에 협력을 구했었습니다. 현재 원바디(매일 묵상을 각국어로 번역 출판하는 곳)에서 오늘의 말씀(각국어로 번역된 자료)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최되는 지역인 강릉 평창 정선 지역 사역자들과 전국에서 온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전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물품으로는 스카프, 열쇠고리, 태극기 우산, 과자 세트, 핫팩, 성경책(각국 언어) 등으로 IOC 위원, 임원, 선두가족, 언론인에게 선물형태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신천지와 여호와증인,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경기장 안에 100명 내지 200여 명이 단체관람하면서 이단을 홍보했습니다. 그로 인해 IOC에서 경기장 4KM 안에서는 전도지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단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경기장 티켓구매를 통해 경기장 안에서 조직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선교올림픽이 되도록 기도는 했지만, 하나 된 모습으로 좀 더 조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동계올림픽선교를 준비하다가 귀한 만남을 가지셨다고요?

한국교회들이 여러 방법으로 동계올림픽선교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효율적인 길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을 만나서 구체화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C&MA교단 소속이며 루지게임 미국국제심판인 신다윗 목사님입니다. 신다윗 목사님을 통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IOC심판이 600여명이고, 그중 기독교인 심판이 230여명(35%)이며 수십 명의 목사님이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들과 효율적 선교를 위해 한국에서 선교회를 조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심판들은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특히 중국이나 북한까지도 비자를 받지 않고, IOC의 AD카드로 입국할 수 있음으로 선교 활동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다윗 목사님과 연계되어서 선교회도 만들어지고, 미션하우스인 백두대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진행되었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처음 시작하신 권오서 감독님을 찾아뵙고 보고하였고, 수석 장로님께서 순발력 있게 결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회도 명칭을 "국제동계스포츠인선교회"로 명명하였습니다. 스포츠인이란 선교협력 및 대상이 국제스포츠위원, 각국 선수단 및 임원, 통역, 자원봉사 및 경기 진행 행정 요원, 각국에서 온 미디어 취재 요원을 포함합니다.

먼저 IOC에서는 각 국가를 소개하는 부스를 1국가 1하우스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코리아 하우스"와 "미션하우스" 2개의 하우스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동계스포츠인선교회 미션하우스"인 백두대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중앙감리교회와 성결교단 해외 선교부의 헌금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2평짜리 한국전통형 목재 예배당입니다. 한국문화 체험을 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마련되었고, 다양한 방문객들과 각국의 언론사들이 취재하는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참 훌륭한 선교센터가 되겠군요. 실제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뉴질랜드 코치가 기도하고 안수도 받고 점심도 먹고 갔습니다. 일본, 태국, 중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선수와 가족, 언론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돌아갔습니다. 각국 선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미션하우스에 가봤는지 회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세계 언론인들이 관심을 두고 오셔서 기도도 하고, 차츰 방문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패럴올림픽을 마칠 때까지 미션하우스는 운영될 계획입니다. 92개국 선수들이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얻고 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미션하우스인 백두대간 만민의 기도의 집은 지난 18년 동안 올림픽유치와 성공개최를 위해 기도해 온 결실입니다. 강기총과 성결교단 해외선교위원회와 시작은 했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연합회와 한국교회의 선교단체, 개인, 교단, 연합기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강원도는 물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미션하우스에 오셔서 한국교회와 한반도의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어느 때든지 오셔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의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교회로 남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칼럼

연합과 하나 됨



글. 이연희 목사(아미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며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소견대로 보고, 느끼고, 말할 것이다.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각국의 선수들은 선수들의 개인 영광뿐 아니라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수상할 때는 자신의 나라 국기를 게양하고,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므로 모든 관중과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 앞에 금메달의 영광을 알리게 된다. 그렇기에 출전한 선수들과 코치 감독, 스태프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된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가 있기까지는 선수 혼자의 힘으로 된 경우는 드물다고 알고 있다. 선수와 관련된 사람들이 금메달을 향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것이다. 코치와 감독, 선수 개인 또 선수는 선수끼리 금메달을 향해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다.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루만져주며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를 격려를 받는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존중하며 인정하면서 함께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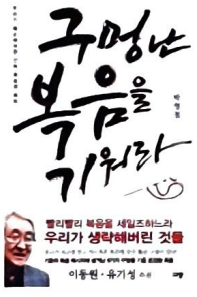
출전하는 선수나 응원하는 관중이나,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의 마음은 아마도 하나일 것이다. 모두 금메달을 따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고, 뛰는 마음은 목표달성 후에 더욱 값지게 나타난다. 선수의 개인기가 탁월하고 뛰어나도 혼자만의 성적으로 우승을 할 수 없는 종목에서는 하나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비롯 도시복음화 춘천성시화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와 같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소망한다. 당연하다. 반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한 교회를 섬기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더욱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거룩한 도시를 향한 성시화의 위대한 목표를 향해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도시, 성시화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목표이다. 교회와 교회가,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일에 힘쓸 때 춘천성시화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책 소개

부활절에 소개하는 책 "구멍 난 복음을 기워라"(박영철/규장)



글. 편집부

한 20여 년 전쯤에 겨울 폭풍설이 몰아치는 한라산 동게 적설기 등반을 한 적이 있는데 새벽 3시쯤에 한라산에서 윗세오름에서 만세동산으로 내려오다가 링반데룽에 걸린 적이 있었다.

독일어로 '링반데룽'(Ringwanderung)은 둥근 원을 뜻하는 'Ring'과 걷는다는 뜻의 'Wanderung'이 합쳐진 말이다. 이 용어는 등산 조난과 관련이 있는데, 등산 도중에 짙은 안개 또는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같은 지역을 맴도는 현상을 나타낸다. 길을 찾아간다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같은 지역만을 맴돌게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링반데룽이란 말을 환상방황(環狀彷徨)이라 부르기도 한다. 윗세오름에서 만세동산 구간은 나무들이 별로 없이 구릉 지역이라 폭풍설이 몰아치는 시계제로 상태에 가깝고 눈은 무릎과 허리 이상으로 쌓여있어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고 헤드 랜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이런 상태에 몇 시간 동안만 갇혀도 동사해버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다행히 매킨리 원정을 준비하던 후배가 있어서 한참 동안 빙빙 돌다가 숲으로 붙어서 치고 내려온 적이 있었지만, 말로만 듣던 링반데룽에 걸리니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의 두려움이 진신을 엄습했었다. 실제로 히말라 같은 고산지역에서 링반데룽에 걸려서 조난을 당하고 불귀의 객이 된 사람들이 많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1,700년 동안 마치 링반데룽에 처한 상황 같다. 진정한 초대교회의 복음은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로 끊어져 버리고 기독교가 세속화되면서 진정한 복음의 광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근원적인 죄'가 가려져 버렸던 사실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실존을 확증시키고(행17:31),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요2:22). 34살짜리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의 말을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사건이 부활 사건인데 그것이 가려져 버렸다.

그리고 죄(Sin)란 바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 자아숭배(self worship)의 죄. 내가 내 인생과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sins)가 아닌 바로 이 근원적인 죄(Sin)를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값싼 복음(Chip Grace)으로 전락해 버렸나? 당신은 진정으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진정 복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받았는가? 정말 모든 성경 말씀을 누리고 사는가? 죽음과 물질의 문제에서 정말 자유 한가? 정말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는가?

왜 복음에 힘이 없나는 질문에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Lord)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구세주(Savior)로만 믿었다는 통찰력있는 지적을 한다.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빼아프지만 솔직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는 사실이다. 나의 출세와 성공과 건강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다. 이 통렬하고도 정직한 돌직구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틀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나, 그러면서도 어쩌란 말이냐고 스스로 변명해버리고 현실에 타협해 버리는 무기력한 모습이 또다시 충격으로 다가온다. 인간존재의 타락하고 소망 없는 초라한 자화상에 서글퍼지기까지 낙심이 된다.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정 누구를 위해 사는가? 그러나 이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전한다. 모든 절망의 근원이 나였고 이제 그 '나'에서 '주'로 주인을 바꾸라고 복음을 전한다.

이 책 제목은 너무나 촌스럽다. '구멍 난 복음을 기워라'는 제목이었다.(요새 누가 옷을 기워서 입는단 말인가?) 그러나 그 내용은 전 세계의 잠자는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후벼파는 비수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진정한 초대교회 원형의 복음을 너무나도 섬세하고 쉽고 간결하게 기술한 것이 이 책의 미덕이 아닐 수 없다. 그 통찰력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정한 복음을 찾아온 저자의 외골수적인 열정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신약성서적인 교회를 찾아서 불철주야로 온 힘을 기울여 온 각고의 노력에서 기원한 것임을 누구나 감지할 것이다.

죄와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이란 네 개의 카테고리에서 진정한 초대교회 원형의 복음 진수를 너무나 탁월하게 기술하였고 마지막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에 굴복한 자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공동체에 대한 짧은 언급은 저자의 평생을 연구해오신 교회론에 대한 더 풍성한 통찰력이 담긴 다음 저술을 기다리게 만든다. 이 책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라는 마음이 들어 감히 일독을 권한다.









2018년 태국 의료선교 및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보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는 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보렴". 이번 의료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현장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한 선교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나눔교회에서는 2018년 1월 28일(주일)부터 2월 3일(토)까지 16명이 태국 치앙마이 라후족에게로 의료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태국 공항에서부터 우리의 계획과 다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입국할 때, 2/3의 약과 치과 치료 장비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침도 1/3 만 통과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형광영 선교사님과 이병일 장로님과 김동석 집사님이 공항에 가서 세관원들에게 사정하여 몇몇 물품을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치과 장비는 통과가 안 되어서 치과 진료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병일 장로님이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소아과 침과 약의 일부만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은 맡을 사역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병일 장로님이 내과와 소아과 침 진료를 하고, 제가 간호사일을 담당하고, 치과 선생님이신 김동석 집사님과 치과팀 3분이 약 조제를 맡아주었습니다.

저희 팀이 찾아간 라후족은 태국에 살지만, 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도 태국말과 다른 라후어를 쓰고 주민등록이 최근에는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후족은 태국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몹시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옛 미국 흑인 노예들이 백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라후족은 산속에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화전으로 살았는데 최근에는 태국 정부에서 화전을 못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심해진 상황입니다. 라후족은 걸어서 한 시간 거리인 미얀마에서 생산된 마약 중간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속에 좋은 집은 다 마약상 집입니다. 라후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순교자 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라후족의 종교관은 소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윤회 되어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개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여 개를 잡아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도 개는 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후마을에는 개가 많고 온순합니다. 라후족의 신관은 창조주를 믿으며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몹시 무서워하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들은 또보(선교사님은 제사장 또는 무당이라 했습니다.)를 찾아가서 치성을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섯 마을을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후아이 라믄마을)은 선교사님께서 품고 기도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진료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소아마비 환자가 많아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침을 맞으시는데 주변 분들이 잘 보이게 후레쉬를 밝게 비추어 주어서 중요한 분이신가 했더니 이분이 또보(무당)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구정과 같은 명절 마지막 날 또보할아버지가 장구를 치며 춤을 리드해야 하는데 허리가 아프셨던 것입니다. 침을 맞고 허리가 좋아지셨는지 벙글벙글 웃으시며 저희 팀 진료하는 것을 보시고는 마을 주민에게 저희 팀이 먹을 식사를 준비시키시고 대표로 감사 인사를 하시며 내년에 다시 와 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형국선교사님은 처음 방문한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짜소마을에서는 또보할아버지가 예수의 영이 자신이 섬기는 귀신의 영보다 센 것을 알고 우리 의료 선교팀을 받아들이면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다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료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또보할아버지의 무릎을 아프게 하시고 이병일 장로님의 침을 맞고 낫게 해 주시어 진료 후에는 해 같이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만약 약과 치과 장비가 다 통과되었다면, 몸이 흔들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했던 울퉁불퉁한 산길로 어찌 다녔을까 싶습니다. 약을 싸고 풀고 정리하고 그 무거운 치과 장비는 또 어찌 옮기며 다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선생님이신 김동석 집사님과 간호사 3분이 약 조제를 맡아 주시어 순조롭게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마을을 순회 진료한 후, 우리 팀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에 감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

글. 이병일 장로 · 허근옥 권사(나눔성결교회, 우리소아과 원장)





"땡큐 에티오피아"

글. 김선일 목사 (소양성결교회)

춘천을 가로지르는 공지천 근처에서는 특이하게 생긴 검은색 건물이 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다. 이 건물은 1968년에 세워진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와 함께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1951년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에티오피아는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 황제의 명령에 따라 황실 근위대이자 최정예 부대 '칵뉴(Kangnew)'를 한국으로 파병했다. 칵뉴란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고 적을 격파하라'는 의미로, 셀라시에 황제가 직접 명명한 부대명이었다. 칵뉴 대원들을 태운 배가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해 14500km떨어진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는 3주가 걸렸다. 매일 뱃멀미에 시달리며 힘들고 긴 여행에 지친 병사들을 기다린 건 강원도 춘천 · 철원 등 중 · 동부 전선의 맹추위였다. 생전처음 본 눈과 영하30도에 육박하는 추위 속에 손가락마저 얼어붙어 방아쇠를 당기기조차 어려웠다고 생존용사들은 증언한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들이 올린 전과는 대단했다. 총 6037명을 파병해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당하며 253차례의 전투를 치렀는데, 단 1명의 전쟁포로도 없이 모두 승리한 '전승 부대'였다. 이들의 영웅적 행동은 귀국 후 황제로부터 땅을 하사받으며 치하받았는데 대한민국을 이를 기억하고 참전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1974년 에티오피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며 상황이 달라진다. 동맹국인 북한을 상대로 전투를 했다는 이유로 참전용사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 '전쟁영웅'에서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이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연금이 축소되며 자녀들의 교육기회도 박탈당한다. 이들이 모여 살던 '코리아 빌리지'는 최악의 빈민촌이 되어 버렸다.

올바른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사랑을 실천하고도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으며 믿음 따라, 진리 따라 살았는데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도 있다. 다윗을 도왔다가 사울로부터 배신자로 규정되며 죽임당한 아히멜렉의 경우는 대표적이다. 신앙을 지키려 애쓰다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는 현대의 순교자처럼 들리기도 한다. 올바르게 살면 인생이 술술 풀려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인생 실패가 아님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닐까. 사실 가장 억울한 죽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며 겪는 고난은 오히려 더 큰 영광의 그림자일 것이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에티오피아와 다양한 경제적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생존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발전을 감격해서 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고백한다. 고난과 희생이 있어도 나의 올바른 일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기념관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땡큐 에티오피아"이다.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이다.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맙다 충성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떠올리는 건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일 것이다. 주님 안에 있다면 헛고생은 없다.



99주년 삼일절에 드리는 기도

박인관 이사장(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염감리교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들이 이를 존중하고 자유와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하셨건만, 사람들이 이를 존중하고 자유와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하셨건만, 사람들은 죄가 가득하여 경계를 무너뜨리고 쳐들어가 살육하며 자유와 평화를 짓밟으며 살아왔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역시 이를 어기고 평화롭게 살던 이 민족을 총과 칼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화를 빼앗아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특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를 참고 보지 못하고 99년전 3월 1일 만세운동을 벌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몸부림을 친 이 날을 우리가 되새기기 원합니다. 이 날과 이 정신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살게 하신 거대한 뜻이 계시기 때문이며 창조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지나갔으나 이런 일이 다시 이 땅에 오지 않게 하시고 일본을 용서하고 품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승만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자유와 신앙을 바탕으로 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이렇게 세워진 이 나라가 국법을 바꾸어 가며 자유를 제거하고 공산, 사회주의를 꾀하려고 모략하고 있나이다.

주여! 주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참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악한 게교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비오니 음흉한 계획을 세우는 이들의 계획이 무산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가 높이 솟구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귀한 피를 흘려가며 얻고자 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 자유와 평안을 지키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되어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과 부귀영화라는 물질에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맛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간곡히 청하옵나니 우리 춘천도성이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를 축복한다
제사장의 축복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많다. 그러나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된다. 기도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면서 축복해야 한다. 성경 말씀의 한 부분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더 좋다. 자녀를 축복하는데 아주 좋은 본문이 성경에 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민수기 6장 말씀은 힘이 있다. 이 말씀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축복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벧전 2:9).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성시화 되도록 직장과 사회 각 영역에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도 이 역할을 해야 한다. 특별히 자녀들이 청소년 기간에 비전을 품고 준비하도록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0년, 13살 이던 막내 아들은 나와 함께 국토순례 기도여행을 다녀왔다.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경기도 파주 통일 전망대까지 한반도를 동서로 걸었다. 6 · 25 전쟁의 전적지인 펀치볼 옛길을 지나 을지전망대에 올라갔고, 제4땅굴도 견학했다. 양구, 철원, 연천의 민통선을 따라 걸었고, 임진각에서는 남북한의 분단 역사를 공부했다. 파주통일전망대에서는 팀과 함께 찬양 예배와 통일 기도회를 했다. 320Km를 10일 동안 걸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그 얼굴의 빛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축복했다.

아빠와 여행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따라나섰던 아들은, 국토순례 기도여행이 끝나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 기도 하면 비전이 일어난다. 아들은 남북 통일 운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며 비전을 가졌고,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다.

아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도 좋아졌다. 강원도의 산길을 걷더니 우리나라가 이름답다면서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생선과 나물을 잘 먹지 못하던 아들이 진부령을 넘자마자 먹은 황태구이와 양구의 어느 산길에서 먹은 산채 나물 정식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기도 여행 이후에 무엇이든 잘 먹는 건강한 아이가 되었다.

막내는 기독대안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2년 목표로 수능 공부를 시작했다. 첫 해에는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고, 다음 해는 학원에 다녔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수능 공부 기간을 기도로 함께 하면서 날마다 축복했다. 공부하러 갈 때마다 현관 앞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장의 약속 말씀으로 축복했다.

• 먼저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 그 다음에는 피곤한 몸이 회복되고,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도록 이마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다.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 방법이다. 성경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권한다. (약5:14)

• 기도가 끝나면 얼굴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축복했다.

하나님은 홍영찬에게 복을 주시고, 홍영찬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홍영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님은 그 얼굴을 홍영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빛은 어둠을 쫓아낸다. 공부 하느라 피곤할 때나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시도록 축복하고 선포했다. 아들은 수능 공부하면서 몇 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원하던 대학의 정치 외교학과에 진학했다.

알바생으로 일하는 딸이 출근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축복한다. 출근을 서두르는 바쁜 시간이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큰 아들이 까칠한 나이였을때도 이 말씀으로 계속 축복했다. 큰 아들이 결국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바뀐 내용은 2015년 출간한 자녀 양육 단행본에 소개했다.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규장 출판사, 축복하는 부모 편, 92-100 P)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다. 간단한 대화를 곁들여도 5분이 걸리지 않는다. 이처럼 짧은 시간으로 자녀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마땅히 부모는 기도하며 축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부모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글. 홍장빈 목사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이스라엘 방문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인 희년을 맞은 2018년 첫 달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것은 주의 은혜였고 행운이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가진 축복의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방문한 쥬빌리팀은 서울생명나래교회와 춘천주향교회를 포함 7교회에서 총31명이었는데, 그중에는 탈북민도 2명이 있었다.

1월 22일(월) 오후1시20분에 12박 13일의 일정으로 설레는 마음을 싣은 비행기는,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시간을 거스려 갔기 때문에 같은 날 저녁10시45분에 도착을 했다. 공항에서 빠져 나오며 간단한 인터뷰를 할 때, 내가 처음 비행기를 탔던 때가 생각났다. ㅇㅇ그룹 해외지사 주재원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을 때였다.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는 기분은 뭐랄까, 코끝에 다가오는 신선한 공기만큼이나 새로웠었다. 이스라엘에 발을 디뎠을 때는, 외부로 다가오는 공기가 아니라 나의 심장이 반응하였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 이곳에 왔기에, 사랑하는 주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고백하였다. 주님이 걸으셨을 곳을 한 발자국이라도 밟아보고 싶었고, 주님이 바라보셨던 곳을 바라보며, 나의 온 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구하였다.

나사렛 한인교회에서 이틀간 열린 예루살렘 쥬빌리 컨퍼런스와 히브리대학교에서 열린 이스라엘 포럼에 참여한 것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 예루살렘 쥬빌리 컨퍼런스에서는 한인 선교사님이 50여 분도 함께 참여하였는데, 이렇게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반도 통일이란 주제는 교회연합을 끌어낼 수 있는 명제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예루살렘 쥬빌리 컨퍼런스에서는 메시아닉주 연합대표이신 하난 루카츠 목사님의 "헐몬의 이슬"(시133편), 시온산 어린양 커뮤니티 르우벤 버거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의 역할", 수캇 할렐 대표이신 릭 라이딩스 목사님의 "이스라엘, 한반도의 하나 됨과 열방구원"(사62장), 이병철 목사님(주향교회, 쥬빌리 부상임위원장)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슥9:12)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하광민목사님(서울 생명나래교회)의 통역과 오성훈목사님(PN4N)의 기도회 인도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스라엘 포럼은 한국 목회자들이 준비한 모임이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 성경의 비밀들을 풀어가기 위한 연구들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반나절만 참여하고 이동해서 아쉬웠으나, 그 일들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귀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놀랐던 유대광야를 필두로 성지 방문한 곳을 정리해보니 50여 곳이 되었다. 모든 곳에 각각의 은혜가 있어 전체를 이야기하기에는 공간도 벅차고,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수준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다. 그러기에 꼭 그곳을 방문해보기를 권한다. 이스라엘은 신기한 곳이다. 이천여 년 간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땅에 돌아오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 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된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을 알지만, 예수님을 메시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지금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3만 여명을 넘었다고 한다. 구약에 능통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면 신구약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가진 영적 부요가 진심으로 부러웠다. 때가 되면 유다사람 한 사람에 이방 백성 열 사람이 붙든다(슥8:23)라고 쓰인 성경이 생각이 났다.

이스라엘을 다니다 보면, 검정 옷과 모자를 쓴 정통유대인들을 볼 수 있다. 조금 자유스럽게 머리에 키파만을 쓴 유대인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삶에 녹아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나와는 너무도 달랐다. 그들과 비교해볼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은 자유분방하여 길들지 망아지 같은 모습이었다. 뼛속까지 철저한 이방인이 맞았다. 그들이 말씀에 자신들을 묶으며 말씀을 지켜내고 있을 때, 나는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았다. 나름 값없이 은혜를 취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자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까.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인가. 나는 로마서 말씀처럼 돌감람나무가 맞았다. 참감람나무에 짓 붙여지지 않았다면, 열매 없는 돌감람나무 인생이 되었으리라. 참감람나무도 버림을 받았는데, 돌감람나무이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검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민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절기와 사밧이라고 한다. 사밧(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호텔에서 보았다. 호텔에 있는 시나고그에 모여 성경을 읽으며 모임을 하고 있었고, 이른 아침에도 마당에서 둥글게 돌면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있었다.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난다. 사해사본은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에쎈에파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 사본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들은 정결 의식을 하며 말씀을 기록 보존하였다고 한다. 그 사본은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된 사본보다 훨씬 앞선 사본인데, 기록이 똑같다고 한다. 자신의 정결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그들이 너무도 고마웠고 감사했다. 내 심령에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신을 지켜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께서 피 흘리시고 성령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깊이 내가 가진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통곡의 벽에 갔을 때, 동행한 탈북자 한 분이 통곡을 하였다. 그분의 통곡은 북한 주민의 통곡 같았다. 그들은 외쳐 울부짖을 수 없으나, 그녀는 그들을 대표해서 주 앞에 울부짖었다. 주님! 한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큰 왕의 성에서 간구합니다.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품에 안겨 기도의 시간에는 두 뺨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감람산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위치에 기도의 집이 여러 곳 있었다. 그 기도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스라엘에서 깊은 샘의 생수를 길어 올리고 계시는 장창근 선교사님의 멜기세덱 기도의 집, 한민족의 사명을 일깨우시던 릭 라이딩 목사님의 수캇 할렐 24시간 기도의 집,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신 주님께 호산나를 외쳤던 벳바게에 있는 탐헤스 기도의 집을 방문하였다. 어느 곳이든지 한국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성경의 비밀을 알고 세 시대를 열었던 바울처럼, 한민족의 사명을 알고 마지막 시대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있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는 짓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을 방문하니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이 보인다. 그러하기에 이 한반도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122:6)

글. 이은정 사무국장(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향교회 권사)

독자 기고문

가장 아름다운 죽음

지난 2017년 9월 25일 11시에 향년 93세로 류근완 명예 장로님(순복음춘천교회)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옮겨가셨다. 그의 아름다운 삶과 죽음의 모습을 나누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다. 류근완 장로님은 예수님을 좀 늦게 영접하였지만 누구 못지않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가셨다. 1990년경에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1998년 12월에 명예안수집사로 임직, 2000년 11월에 명예장로로 세워졌다. 예수님을 믿으며 시작한 새벽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는데, 새벽 3시면 일어나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교회에 와서 새벽예배를 드리셨다.

장로님은 춘천시 동면이 고향이며, 93년 세월을 고향 땅에 살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슬하에 두고 잘 성장시켜 혼인도 잘 시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 대가를 이루었다.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이 잘 살도록 물려주고 가셨다. 장로님은 사업적으로도 성공하였는데, 팔호광장 옆에 있던 은하예식장을 다른 사람과 동업을 했다고 한다. 그 사업을 끝까지 다툼 없이 잘 운영해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은 사업가로 남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인단, 평화통일 자문위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불우이웃돕기 기금 기증, 청소년 선도위원과 국제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다. 기독교계에서는 기드온협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성경 보급에 남다른 본을 보이셨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도록 인도하는데 견인차 구실도 하셨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장립된 후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세워 주셨으니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거금을 헌금하여, 교회 뒷산인 벧엘 동산이 매입되어 성도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교회 장로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있다. 한 번 갈 때마다 10-2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장로님은 항상 50여 미터를 앞서서 가시곤 하셨다.

3년 전, 필리핀 선교를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100여명을 갔을 때, 장로님도 함께 가셨다. 그 곳은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였다. 더욱이 산을 하나 넘어야 해서 모두 난감해하였다. 그때 장로님은 90세이신 나이에도 앞장서서 파이팅을 외치는 바람에 모든 성도가 힘을 얻고 무사히 산을 넘었다고 한다. 또한, 몸져눕기 전까지 시니어 빌립보 찬양대원(평균나이 82.5세)으로 활동을 하셨다. 그리고 시내를 거의 걸어서 다니셨으며, 서예실에 나가 붓글씨를 쓰시는 순정파이시기도 하셨다.

장로님은 1개월 전부터 몸에 이상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서 주사 맞기를 거절하였다. 15일간 곡기를 못 드시고 물로 입술을 적실 정도이었는데, 그때 장로님은 천국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다시 가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다시 오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위로차 심방을 가면,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안수를 하시며 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게 전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여 주셨다. 자녀들에게 담임목사님을 잘 섬겨라. 전도와 선교를 잘하여라. 서로 화목하게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의 말씀까지 상세히 전하시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여 주셨다.

천국환송감사예배를 끝으로 장로님은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 많은 성도가 류근완 장로님처럼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은 남은 가족과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된다.

글. 김용헌 원로장로(시인, 순복음춘천교회)

2018학년도 신(편)입생모집

기독교음악예술원
CHRISTIAN MUSIC CONSERVATORY
기독교음악통신대학 (과정)

과 정	학 과	지 원 자 격
기독교음악통신대학과정(2년4학기)	교회음악과 교회실용음악과	1) 수학 능력이 가능한 자 2) 기독교인으로 세례 받은 자 ※ 학력 미흡자 면담 후 입학가능
미국학위과정(Piedmont University) (3,4학년) (학사)	교회음악과 교회실용음악과	1) 기독음대졸업생 및 국내외 대학 2년 이상 이수한 자 2) 1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3) 기독교인으로 세례 받은 자
대학원 (석,박사)	교회음악	1) (편입)전공관련 대졸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2) 기독교인으로 세례 받은 자

(전공 : 지휘, 작곡, 피아노, 성악, 오르간, 관현악)
※교육방법 •실기 : 주1회 1:1 교수렛슨, 이론 : 교재수업 •지역별 세미나
•월1회 출강 수업(기독음대) •주1회 수업(학부, 대학원)

24456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2길 16-9 1층 Musica Tov
문의 010-2737-7111

잠깐!

신천지의 황당무계한 "신인합일론"

글. 동부연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신천지

신천지가 주장하는 교리들은 모두 신학적으로 논할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것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말이 안 되는 교리가 바로 '신인합일 육체영생' 교리이다. 그들은 개역한글 성경의 애매한 번역을 왜곡하여 "신천지의 수 144,000명이 다 채워지면 순교자들의 영 144,000명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육체가 영생불사체가 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신천지의 주장의 세 가지 오류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서 분명한 세 가지 오류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144,000명의 순교자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자기 몸 안에 또 다른 영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의 몸에 두 영이 존재하게 되어 행동 하나하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중인격, 정신분열 혹은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144,000명의 순교자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사람의 몸이 영생불사체가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히9:29)"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신천지는 ①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순교자들의 영'이라 하고, ②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신천지인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신천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곧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은 목 베임을 당 한자들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신천지인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바른 해석이다.

신천지가 사악한 10가지 이유

1. 신천지는 사이비 종말론을 가르쳐 소중한 인생을 망치게 한다.
2. 신천지는 가출과 이혼을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파괴한다.
3. 신천지는 부모를 고소하여 가족관계를 무너뜨린다.
4. 신천지는 모든 '거짓말'을 동원하여 신도들을 미혹한다.(모략교리)
5.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속여 사람들을 미혹한다.
6. 신천지는 살아서 영생한다는 '육체 영생'으로 현혹한다.
7. 신천지는 2,000년 역사를 지켜온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을 파괴한다.
8. 신천지는 사악한 이단 교리를 가르쳐 인간 교주를 신격화한다.
9. 신천지는 탈퇴하기 어렵다. 일단 미혹되면 분별이 안 된다.
10. 신천지교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단계를 거친 사람들만 입장이 허용되며, 비밀로 진행된다.

2018년 새롭게 시작되는

김한기 목사의 엘림수양관 사역

영육간의 치유를 위한

화요 치유 집회

◈ 매주(화) 오후 2시~4시
◈ 치유 상담 : 오후 1시

목요 실생활 영성세미나

◈ 매주(목) 오후 2시~5시
◈ 등록비 : 무료(중식제공)-자유헌금
◈ 개강일 : 2018. 1. 11(목)



김한기 목사

은혜성산교회 담임
춘천엘림수양관 관장
CTS "상한마음의 치유" 설교자
CTS "빛으로 소금으로" 설교자
C채널"상한심령의 치유"설교자
극동방송 "은혜의 동산" 설교자

차량운행안내

경기광주 오전9:30
모란역5번출구 오전10:00
잠실역5번출구 오전10:30
(목요일은 잠실역 운행 없음.)
춘천이마트 오전11:20
춘천역2번출구 오전11:30

엘림수양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여골길 79

엘림수양관 (033)244-1270
은혜성산교회 (031)797-0191

모임 안내 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세계기도의 날 행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춘천지역(회장 심정례 권사)에서는 세계기도의 날 행사를 3월 2일(금) 오전11시에 춘천중앙감리교회 덕수홀에서 갖는다. 세계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매년 1회, 기도가 필요한 한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세계기도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남아메리카 동북부에 있는 가장 작은 나라 수리남공화국을 위해 기도한다. 춘천지역에서도 춘천 내 교회 여전도회 중심으로 갖게 된다.(문의: 010-3545-2932)

모임 안내 2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입양특례법 개정의 배경과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강사 전국입양가족연대(KAFA) 김지영 사무국장
일시 2018년 3월 10일(토) 2-4시
장소 강원홀트6층 강당
문의 010-7197-0325
주회 전국입양가족연대(KAFA) 강원지부

모임 안내 3

춘천 북한선교학교

주제 "북한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시24:7-10)
목적 남한과 북한의 복음 통일을 이루며, 제3국과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목표 1. 춘천 지역에서, 북한과 통일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한다.
2. 강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
3. 선교현장의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린다.
4.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다.
5.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재확인 한다.
6. 북한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한다.
내용 10주간의 북한선교 강의 및 1주간의 현장 아웃리치
일정 **2018년 3월 17일~ 5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10주)
회비 100,000원, 목회자 및 신학생 80,000원, 탈북민 50,000원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중회의실 (강원 춘천시 공지로 270)
문의 이병철 목사(010-6254-3162)
이미자 집사(010-2372-4737)
협력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모임 안내 4

민들레 중보기도 모임

민들레 중보기도 모임을 다시 일으켜 주시다.
춘천시의 온전한 성시화를 이루기 위하여, 성시화운동본부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헤아려 사역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돕기 위하여 민들레중보기도 모임이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2018. 2. 6.(화) 시작된 기도 모임은 매주 화요일마다 주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세우신 성시화 일꾼들을 위하여, 추진 사역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20 여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으며, 온건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언 제 매주 화요일 PM 8:00~9:20
어디서 와이신협 3층 회의실(금강로 120)
섬김이 찬양-김병찬 목사, 말씀-조영춘 목사, 기도회-이봉연 사모, 간사-김옥기 집사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제목을 공유합니다.

1. 춘천 400여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헤아리고 일을 추진하도록 도우소서.

2.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추진 사역을 위한 기도
① 사무국 정기예배, 이사회, 임원 정기기도회 가운데 성시화를 위해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지도하소서.
② 본부 운영과 추진 사업 전반에 주의 간섭과 지도하심이 있게 하소서.
③ 청소년 복음화 전략 수립 및 집중 전도 실시를 위해 잘 준비되게 하소서.
④ 성시화 헌신 순회예배가 잘 진행되며 회원을 확보해 나가게 하소서.
⑤ 15개 영역별 위원회에 적합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조직이 살아나게 하소서.

3. 산하단체들을 위한 기도
① 홀리클럽의 임원과 회원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소서. 매월 1회 교회 순회 기도회와 이웃돕기, 구제활동, 의료봉사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② 성시합창단의 단원이 55명(현25명)이 확보되게 하소서. 3월 31일(토) 안동대학교 공연에 은혜를 주소서.
③ 성시무용단 단원이 20명(현11명)이 확보되게 하소서.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무대가 마련되게 하소서.
④ 직장신우회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4. 춘천시 각 영역의 변화를 위한 기도
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미디어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 성경적 가치가 뿌리내리게 하소서.
② 기관장협의회(성시지도자, 기독교연합회 임원 35명으로 구성)가 4회 모임을 앞두고 있는데,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모임이 되게 하소서.

5. 국가적 현안을 위한 기도
① 2018. 6월 지방선거로 주의 뜻에 합당한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2018 신년교례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신재원 목사)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신년교례회가 올해에는 지난 1월 11일(목) 오전11시에 동신교회(이병서 목사)에서 있었다. 1부 예배는 수석부회장 김종익 목사(춘천광명장로교회)의 사회, 부회장 김정호 장로(춘천장로연합 회장, 춘천제일장로교회)의 대표기도, 강원CBS 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설교에는 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성결교회)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요한 10:14-16)"라는 제목으로 있었고, 이병서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2부에서는 이병서 목사의 환영사와 기관과 선교단체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가진 후, 애찬 친교로 마무리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이사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박인관 이사장) 정기이사회가 2월 9일(금) 오전7시에 광염교회에서 있었다.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성시화 운동의 촉진과 만민기도운동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시화헌신예배 추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15개 분과장들을 선임하여 네트워크적인 사역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민들레기도회 운영과 전도를 위한 연합세미나 운영, 성시신문 편집위원 구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특별히 추천된 목회자 이사에 염윤호 목사, 김병찬 목사, 이연희 목사와 김옥기 평신도 이사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공문에 첨부되어 이사교회에 발송되었다.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이 1월 27일(토) 순복음교단 섬김으로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신재원 목사) 주관으로 있었다. 다음 모임은 감리교단 섬김으로 갖게 될 예정이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73차(1월 15일), 74차(2월 12일) 춘천모임(대표 이병칠 목사)이 주향교회에서 있었다. 강사는 1월 73차 모임에 송원근 목사(한선통일목회연구원장, 도시넘어자연빛교회), 2월 74차에 육동일 선교사(에루살렘 진리의 집) 이었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7시15분에 주향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75차 모임강사는 김규남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이다. 또한 화요통일기도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4시에 갖고 있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춘천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 목사)가 1월 29일(월)에는 예수나라 기도회로 모였고, 2월 26일(월) 저녁8시에는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있었다. 거룩한 나라와 한민족을 위해, 복음적 평화통일과 남북한 정치적인 상황을 위해, 춘천의 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총회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이수형 이사장) 총회가 지난 2월 20일(화) 오전11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연렸다. 1부 예배는 박상칠 목사(강원지회 지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사회로 구성덕 목사(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이사장 이수형 목사의 설교, 최남식 목사(화천명성장로교회)의 비전2020실천공동기도 인도와 이수형 이사장의 축도가 있었다. 이어 2부 회의에서는 사업과 회계보고, 예산과 사업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2군단 예하 부대에서 사역하시는 군교회 군목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인사말씀에서는 기도와 섬김 가운데 군부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으며, 특별히 부활절 계란 나누기와 성탄절 사랑의 온차 나누기 행사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에서는 군선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민간교회와 군교회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군부대가 많기에, 제일 먼저 자매결연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 화천과 춘천교회 합쳐서 20여개 교회가 군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자매결연이란 제정적인 후원보다는, 1년에 한번이라도 방문하여 교제를 갖고 군선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춘천과 강원도 내 교회에서 자매결연에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3월 30일(금)에 부활절 계란나누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황금어장인 군부대에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 이 행사에 교회와 개인의 후원이 절실하다고 조남원 목사(총무)는 전했다. (후원계좌: 우체국 202051-01-002531 군선교연합회)

취재/사진. 이은정

인사 동정 와이신협 신임 이사장 취임 남준섭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유머

아침찬송

시골 목사님이 서울 동생 집에서 하루를 묵은 뒤 다음날 아침, 누군가의 노랫소리에 잠을 깼는데 알고 보니 제수가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였다.

목사는 " 야, 우리 제수는 아침을 찬송가로 시작하는구나! 하며 흐뭇해했다. 아침상을 받으면서 목사는 제수를 칭찬했다.

"제수씨,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을 찬송가로 시작하시니 이 집은 축복받은 집입니다."

칭찬을 받은 제수는 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목사님,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는 다름 아니고요, 1절을 부르면 계란이 반숙되고, 2절까지 하면 완숙이 되기 때문이예요. 그걸 조절하느라고요. 호- 호 -호."

부활

경상도 할머니 셋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매1: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할매2: 와 죽었다 카드노?

할매1: 못에 찔려 죽었다 안카나.

할매2: 어이구, 머리 풀어헤치고 다닐 때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도 않던 또 다른 할머니가 물었다. "어이, 예수가 누꼬?"

할매1: 몰라, 우리 며늘아가 "아부지, 아부지" 캐샀는거 보니 사돈어른인갑지 뭐!

할매3: 그래, 문상은 갔더나?

할매1: 아니, 안갔다.

할매3: 왜 안갔노?

할매1: 갈라 캤더만 사흘만에 살아났다 안카나!

글. 이관형 편집장(한길감리교회 권사, 자연유치원 원장)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http //cafe.daum.net/ccholly (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문의 : 010 2529 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 단원 수시모집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안길 66번길 18
문의 : 010 3180 5330 (지도 김귀선)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 6378 2261 (지휘자)

춘천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내 목회자, 은퇴목사님, 초보자 환영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1시-3시
장소 : 나눔교회(동면 만군길 233-1)
문의 : 010-2775-1014 (탁명수 목사)
010-5521-3779 (박성규 목사)

교회음악(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피아노
문의 : 010.6375.8874

헐몬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문의 : 010.8798.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cjmm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문의 : 010.5596.3702 (송무 최재영 목사)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 더즐거운탁구(후평E.T지시장점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합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 목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 합기도선도관(박물관 앞)
문의 : 01.0.3585.3620 (이영규 목사)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7757.4972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Isaiah 53:5

네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예수부활

2018. 4. 1 주일 AM 6:00

소양성결교회

강사 춘천지역 교단대표 공동설교

역사적 의미 김혜영 목사 중앙장로교회 (춘천장로교연합회 회장)
성경적 의미 김선일 목사 소양성결교회
신앙적 의미 손학균 목사 석사감리교회 (춘천목회자연합회 직전회장)
미래적 의미 조영호 목사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교회와 부활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고난과 부활 차덕수 목사 강원침례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흥 강민승 강민찬 강상모 강석봉 강성복 강옥자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정희 곽해옥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여림 권영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채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고 김금란 김기영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상희 김생수 김성희 김설아 김세환 김수국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연숙 김영관 김영수 김영순 김영신 김영명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기 김옥선 김용배 김옹기 김은아 김인아 김은희 김일섭 김점자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녀 김종숙 김종옥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지훈 김진숙 김진희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균 김학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옥 김혜란 김혜숙 김화분 김효순 나정희 남궁자 남상구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호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박 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민순 박병화 박상준 박상혁 박소영 박순배 박애자 박영호 박옥화 박은혜 박인관 박정애 박종일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춘자 박필상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백광일 서경숙 서묘석 서성자 서성진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온수 신종길 심규항 심효선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미선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엄근혜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제영 오준영 오흥금 오흥수 옥혜숙 용애중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점선 유정선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성자 윤애자 윤은미 윤은욱 윤정희 윤학병 이가현 이갑용 이광림 이규현 이경구 이기자 이기환 이대만 이영선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미영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상만 이상숙 이선임 이성숙 이성은 이소영 이숙희 이승희 이연화 이영규 이영애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유진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은정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종완 이종헌 이주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현석 이혜옥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쌍용 임영광 임운식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정이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은희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장형성 전양자 전정희 정게지 정국환 정규시 정명옥 정미경 정미선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욱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지혜 정진호 정창현 정치용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정섭 조진경 조현옥 주영호 주신자 지윤성 지정훈 차경자 차재옥 채재관 천항호 최광우 최귀숙 최귀순 최돈식 최명기 최문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이 최성현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화 최연화 최영달 최영희 최옥순 최윤영 최은순 최은영 최인숙 최재중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최흥준 최효숙 탁광희 한건영 한명수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진희 한희선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순덕 현연희 현재용 홍성애 홍세표 홍순복 홍영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황정숙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영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신솔교회 새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교회 신성감리교회 엠마오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의숲교회 주찬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등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예닮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로딘어스 매일관광 베드로선교문화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장기발문요양센터 춘천화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